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나머지 광주·전남 선거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후보자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투표

50%, 일반시민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포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지역민의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 민주당 당내 경선 구도와 후보 공약 등을 광주·전남지역 선거구별로 집중 보도한다.

변호사나 전 소통기획관이나

최고위원 vs 전 靑 행정관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사진 왼쪽) 예비후보와 조오섭 예비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예비후보(사진 왼쪽)와 전진숙 예비후보.

광주 북구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됐던 광주 북구 갑 선거구가 민주당의 2인 경선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북구 갑 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했다가 김경진 현 국회의원에 낙선한 정준호(39) 변호사와 그동안 지역구에서 바다 민심을 타온 조오섭(51)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이 경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 변호사는 최근 지역구를 돌며 표판을 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이폰소송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청년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가산점 반영은 정 변호사가 광주에서 유일하다. 정 변호사는 재대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이름을 알리는 한편 젊은 층 공약을 통해 세 걸잡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는 조 전 기획관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지역구 내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이다. 특히 민주당 북구 갑 지역위원회 조직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한 것도 이번 경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재선 광주시의원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광주시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당 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조 전 소통기획관은 균형위원회 근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무를 쌓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정 변호사는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되면서 광주에 기반을 잡았다. 당시 총선 낙선 후 변호

		
	정준호(39)	조오섭(51)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후보 청년법률특보단장 (전)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지역위원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전)민주당 광주북구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주요 공약	·초·중·고 학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 이용 입법 ·광주형 스마트휴먼시티 구축 ·라스크 소독한 아이들 먹거리 금지 입법화 추진	·광주역 행정문화경제복합 신도시 개발 ·차산업 교육 허브 도시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 신설

정준호, 20대 패배 후 와신상담...광주서 청년가산점 반영 유일
조오섭, 운동권 지역기반 든든 중앙정부와 인적 네트워크 강점

사 사무실을 광주로 옮기고, 그동안 '와신상담'하며 21대 총선을 준비해왔다. 정 변호사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누가 청년의 심장을 가졌는가'이다. 우리 안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남은정치 화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청년의 심장과 전문가의 현실감각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공약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 전면 이용 입법 ▲광주형 스마트휴먼시티 구축 ▲라스크 소독한 아이들 먹거리 금지 입법화 ▲특급호텔 건립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 ▲노인복지타운 건립 ▲각화도매시장 이전 및 해당부지에 가족형 생태공원 조성 ▲말바우시장 상인복지회관 건립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연계한 생활체육시설 및 재난안전구조소 조성 등이다. 조 전 기획관은 중앙 정부와의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이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검

찰개혁, 적폐정산, 남북 평화공존, 혁신적 포용·공정 국가 건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담양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를 나와 지역구 내의 동양·동문 지지세가 폭넓다는 점도 조 전 비서관의 강점이다. 그는 "21대 총선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당리당략에만 빠져 일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든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은 ▲북구 발전의 '뇌관' 광주역 행정문화경제복합 신도시 개발 ▲4차산업 교육 허브 도시 구축 ▲자연과학고 유후부지에 교육연구정보원 이전,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 신설 ▲일신방직, 전남방직 이전부지 개발 및 도시재생 ▲동광주 IC페도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말바우시장 현대화와 현안 과제 해결 ▲광주호 호수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영광교도소,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부지개발 ▲방공포대 이전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을

광주 북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58) 최고위원과 전진숙(50)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이 당내 경선을 치른다. 애초 이형석 최고위원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전진숙 전 행정관의 뒤늦은 출마에 따라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 최고위원은 폭넓은 조직과 오랜 지역 활동으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며, 전 전 행정관은 광주시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에 토대를 마련한 뒤 청와대 행정관으로 중앙 인맥을 다졌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관록의 이 최고위원과 여성 가점을 받은 전 전 행정관이 뜨거워 한 판 승부에 고되면서 최근 관심을 받는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최연소 광주시의회 의장(만 39세),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제2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 등의 공약을 준비하면서 지지세를 늘리고 있다. 또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아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등 주도 강점이다.

이 최고위원은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서 지난 연말 공수처법, 선거법 개혁 등을 이뤄낸 개혁 입법을 어떻게 정착시켜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의 기반이 된 노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가운명을 뒷받침하고 호남이 원하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이형석(58)	전진숙(51)
학력	전남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정치학과) 졸업	전남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상임선대위원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 국민소통위원
주요 공약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화단지 조기 조성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북구 건립	·청년도전자금, 청년복지공동체 조성 ·시평생교육센터 유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이형석, 정치·행정 경험 풍부 시장 위원장 맡아 조직 탄탄
전진숙, 시의원 지역 토대 다져...중앙 인맥·여성 가산점 강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광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섰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공약은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화단지 조기 조성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조속 개설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북구 건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북구 본촌산단 내 건립 ▲청년부사관제 도입으로 10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전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부혁신 및 지방행정·사회 혁신 분야를 담당했던 전 전 행정관은 지역 여성정치인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과 북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등을 거쳤으며, 여성 가산점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전 행정관은 "4·15 총선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촛불총선'이 되어야 한다"며 "촛불총선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 또 한번의 준엄한 명령이 될 것이며, 촛불총선의 완성을 위해 세대교체를 위한 정치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광주정치의 새로운 세대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바람과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광주정치의 세대교체를 통해 '존재감 있는 광주정치', '살아있는 민주당의 심장'으로 광주정치를 만들어가고자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주요공약은 ▲청년도전자금, 청년복지공동체 조성 ▲AI평생교육센터 유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채식산업 성장지향 식음료산업 관공단지 조성 ▲중외 어린이공원 미래형 어린이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성평등 임금 고시제, 여성 평등 임금제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